

ABS, 시황 추락세 어디까지...

내수 · 수출 부진에 전자용도 침체 ... SM가격은 상승세

국내 ABS시장이 계속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가전3사의 생산량 감축으로 전기 · 전자용 수요마저 정체, 시장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.

더욱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SM가격이 상승세로 반전됨에 따라 ABS 생산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.

그러나 96년5월 6월 사이 전기 · 전자부문 중 에어컨 생산이 급격히 증가해 ABS 시장침체 완화에 다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

ABS 수급현황(1996.7)

구 분	(단위 : 1000M/T, %)					
	전월대비			전년동기대비		
	1996.6	1996.7	증감률	1995.7	1996.7	증감률
생 산	42.8	45.1	5.3	37.1	45.1	21.3
내 수	19.0	20.4	7.4	18.4	20.4	10.8
적수출	29.0	20.6	▽28.7	16.0	20.6	29.3

에어콘 생산현황(1996.1~6)

구 분	(단위 : 대)		
	1995	1996	증감률
1 월	179,661	133,583	▽25.6%
2 월	178,993	173,667	▽3.0
3 월	156,866	199,156	27.0
4 월	240,284	212,342	▽11.6
5 월	134,042	186,450	39.1
6 월	122,502	162,693	32.8
합 계	1,012,348	1,067,891	5.5

관련업계에 따르면, 96년7월 국내 ABS생산은 4만5100톤으로 6월대비 5.3%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.

내수는 2만400톤으로 6월의 1만9000톤 대비 7.4% 증가에 그쳤으며 95년동기 대비 10.8%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.

수출도 2만600톤으로 95년7월 2만9000톤에 비해 28.7%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상당수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에따라 국내 ABS 생산기업들은 내수부진에 수출부진까지 겹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더욱이 96년상반기 톤당 400달러까지 하락하는 등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오던 SM가격이 6월 475달러로 상승한데 이어 8월들어 510달러를 기록, 6월대비 7.4%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ABS가격은 96년 2/4분기 톤당 2000달러에서 8월현재 1800달러로 하락, 변동비 수준에 머물고 있어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.

한편, ABS 수요의 30%이상을 차지하는 전기 · 전자부문이 최근 엔저현상에 따른 일본산 가전제품 가격의 대폭하락으로 제품경쟁은 물론 가격경쟁에서조차 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그러나 전기 · 전자부문의 경기악화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은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ABS시장 정체를 다소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96년상반기 룸형과 패키지형을 포함한 국내 에어컨 생산량은 106만7891대로 95년 같은기간의 101만2348대에 비해 5.5%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.

특히, 5월의 에어컨 생산은 18만645대로 95년동기의 13만4042대에 비해 39.1% 증가한데 이어 6월들어서도 16만2693대를 생산, 전년동기 대비 32.8% 급신장한 것으로 집계돼 6 7월의 ABS 국내수요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

에어콘의 대당 ABS 소요량은 룸형의 경우 창문형 1.3 1.4Kg, 분리형 4.5 5Kg, 패키지형(슬립형)의 경우 평균 4.5 5Kg으로 알려졌다.